

■ 연구원 소식

○ 스리랑카 한달 살이 이야기 연기 안내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한달 살이 이야기 나눔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되는대로 회원여러분과 함께 할 날을 잡을 예정이라 그렇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늘 화평한 날만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 역사 속의 오늘

국호(國號)가 정해진 날(1919. 04. 11)

한참 아스팔트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가 있었다. 단순한 음정과 반복되는 가사로 한번 들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였다. 노래 제목은 “헌법 제1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에서 시작되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이르기 까지 전국의 아스팔트를 달궜던 노래이다. 민중가요 작곡가로 유명한 윤민석씨가 작사 작곡한 이 노래의 노랫말은 정말 단순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만 이 가사가 무한 반복되는 노래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권력”, “국민” 이 네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궁하다. 지금의 나라 이름인 “대한민국”은 언제 정해진 것일까?

3.1항쟁 100주년이었던 작년 광복절,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이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당시 “74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강탈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쁨을 맞이함과 동시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도 함께 맞이했다”며 “아니,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당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의 이름이 없었을까?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는 1897년 출범한 “대한제국”에서 시작되었다. 한(韓)은 마한, 진한, 변한을 통틀어 불렀던 삼한(三韓)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한제국을 제안한 이는 고종이었는데 이름이 지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1919년 국내외에서 일어난 민인들의 독립투쟁 과정에서 상해에 건설된 임시정부는 헌법의 성격을 갖는 임시헌장을 만들며 국호를 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그날이 1919년 4월 10일이었다.

'신한민국', '한양정부', '대한민국', '조선공화국' 등의 후보가 1919년 4월 10일 제출됐고 격론 끝에 이튿날인 **11일 새벽 '대한민국'이 공식 채택됐다.** 국명을 실제 제안한 사람은 조소앙이었고 여운형 등 일부는 "'대한'(제국)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며 대한이라는 말을 쓰는 데 반대했다고 한다.(국명 제안자가 신석우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한이라는 이름이 국민 정서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일본에게 빼앗긴 국호이니 다시 찾아 독립했다는 의의를 살리는 게 좋겠다"는 주장에 최종적으로 힘이 실렸다. 이렇게 결정된 국호는 당시 중국의 <대공보>, <신화일보> 등에 보도되었고 1938년 <한민> 18호 등에도 임정수립 기념일이라고 보도했다.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호가 정해진 것은 1948년이다. 1948년 5월 제헌국회 개원된 직후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는 가장 먼저 국호 문제를 논의했다. 제헌의원 대부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생각했기에 무난하게 '대한민국'을 국호로 채택하리라 예상됐다. 그러나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등으로 나라 이름을 부르자는 주장도 제기돼 투표를 거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결정됐다.

대한민국 국호가 정해진 시점에 대한 논란은 뉴라이트 계열에서 제기한 '건국절 논란'과 닮은 지점에 서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이 아닌 독립국가로서 정부가 출범한 1948년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건국 60년 기념식을 여는 등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16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건국 68주년'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현 정부는 지난해 삼일절 경축사에서 '건국 100주년'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계승했음을 분명히 했다.

국호 제정 시점을 1919년으로 보지 않는다면 임시정부의 기록은 무엇일까?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바로세우자는 활동이 여전히 진행중인 것을 못마땅해 하는 이들에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민인들의 투쟁은 어떤 의미일까?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되었다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는 정당의 위성(비례, 자매, 괴뢰 등 불리는 이름은 다양하나 속성은 대동소이한)정당에서 비례 의원 후보 1번으로 공천된 이는 10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재직했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백장선사를 기리는 <수청산 백장암> 네 번째 이야기 “철불과 범종에 얽힌 사연”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실상사 철불 | 보물 제41호. 민중의 호국 의지가 깃든 부처로서 전설과 이적이 함께 전해진다. 일본쪽을 향한 눈길이 자못 매섭다.

실상사 경내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수철화상이 주조한 철제여래좌상이다. 보물 41호로 지정되어있다. 철불은 무쇠가 4천근이나 들어갔으며, 높이가 2.66m에 이른다.

도선스님이 실상사 경내의 여러 탑과 부속 건물 공사를 마무리할 때다. 스님은 흥척국사의 상좌인 수철화상을 법당 안으로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은근한 부탁을 하였다.

“이것 보시게, 수철상좌! 이제 절 모양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꾸며졌네만, 이제 딱 하나가 숙제로 남았다네. 그러니 이 숙제만큼은 수철상좌가 맡아 주지 않으려나?”

수철스님이 궁금해서 물었다.

“큰스님! 미욱한 소송이 도을 일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씀이십니까?”

잠시 뜬을 들이던 도선스님이 천천히 말을 이어 나갔다.

“수철상좌, 보다시피 저쪽의 약사전이 어제 날짜로 완공되지 않았던가? 그런데 저 약사전의 생김이 어떠한가? 어디 부족함은 없어 보이는가?”

“예! 장차 모실 부처님을 빼고는 다 갖추어진 것으로 압니다. 스님!”

수철스님의 대답에 도선스님이 꺾꺾 웃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래, 자네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바로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라네.”

“아니, 큰스님! 그런 큰일이라면, 당연히 우리 스승님이나 큰스님께서 행하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소송이 어찌 그리 큰일을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닐세. 그 일은 분명 수철상좌의 몫이라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 뒷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자네가 그 일을 마쳐야 하네. 그런데 그 부처님은 꼭 무쇠로 만들어야 하는데, 무쇠 사천 근을 넘도록 써야 할 걸세. 내 말을 꼭 잊지 말게나.”

수철스님의 얼굴이 근심으로 어두워졌다. 도대체 그 큰일을 자신이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수철스님의 흐린 낯빛을 본 도선스님이 다시 꺾꺾 웃으면서 말했다.

“수철상좌, 걱정 말게! 때가 이르면 절이 번성해져서 그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걸세. 그러니 지금부터 미리 그렇게 걱정하지 말게.”

큰스님이 내리시는 분부인지라, 수철스님은 어쩔 수 없이 ‘예!’하고 대답을 올린 뒤 법당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수철스님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도선스님이 다시 수철스님의 방으로 불쑥 들어왔다.

“자네가 아직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으니, 내가 좀 더 이야기를 해야겠네. 자, 우리 약사전으로 가 봄세.” 도선스님의 뒤를 따라서 수철스님은 약사전 앞에 이르렀다. 도선스님이 천왕봉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 보게나! 저쪽이 지리산 천왕봉 아닌가? 그리고 그 너머로 일직선상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큰스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수철스님은 얼른 정신을 모았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 천왕봉 너머를 내다보았다. 잠시 후에, 수철스님의 눈길은 멀리 뻗어 나가 바다를 건너 일본에까지 다다랐다.

“예, 바다 건너로 일본의 후지산이 보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후지산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수철스님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은 뒤, 후지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후지산에도 과연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 있는데다가, 모양 자체가 무척 수상쩍었다. 수철스님이 깜짝 놀라 외쳤다.

“스님, 큰일입니다. 후지산은 규봉窺峰의 형상입니다. 후지산이 지리산의 천왕봉을 엿보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도선스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무쇠로 만든 부처님을 모시고자 함이라네. 수철상좌는 이제 내 뜻을 헤아리겠는가?”

수철스님은 머리를 조아렸고, 도선스님은 당부를 빠뜨리지 않았다.

“머지않아 자네의 뜻이 세상에 알려지면, 백성들이 저마다 무쇠쪼가리라도 하나씩 들고 이곳으로 찾아올 걸세. 그러면 백성들의마음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한데 녹여서 부처님을 모시게. 그래야 일본 후지산의 기운을 당해 낼 수 있을 걸세. 내가 꼭 부탁함세.”

도선스님의 혜안 앞에서 수철스님은 더욱 머리를 조아렸다.

그 뒤 홍척국사가 입적을 하고, 수철스님이 실상사의 주지 자리를 잇게 되었다. 뒷날 수철스님은 도선스님이 당부한 대로 백성들의 정성을 하나로 모아 사천 근이 넘는 거대한 철불을 약사전에 모셨다. 정확하게 지리산 천왕봉을 마주 보도록 철불을 모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 일본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후지산의 기운을 억누르고자 함이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호국 사찰로 널리 알려진 실상사에는 유독 일본과 얽힌 이야기가 많이 전해 온다. 약사전의 철불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온몸에 땀을 흘리거나, 전신에서 빛을 뿜는다고 한다. 이런 이적異蹟은 실제 사진으로 찍히기도 했다고 한다.

홍척국사를 기리는 응료탑應了塔과 탑비塔碑는 경내에 보물 38호와 39호로 전해 온다. 수철화상의 자취가 담긴 능가보월탑凌迦寶月塔과 탑비는 보물 33호와 34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로, 부속 암자에 속하는 약수암에는 보물 421호로 지정된 목조탱이 남았으니, 이 또한 눈여겨볼 만한 실상사의 자랑거리다. 보광전의 범종도 흥미로운 구경거리다. 범종의 표면에 일본 지도가 그려 있으니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인 범종의 표면에는 흔히 아름다운 비천상飛天像이 새겨진다.



실상사 동종 | 일본 열도가 새겨진 자리는 오랜 세월 두들겨 맞아 이제는 아예 번들거린다. 눈여겨 살펴보아야 한다.

실상사의 범종은 1664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뒤로 스님들은 매일같이 범종 표면에 새겨진 일본 지도를 두들겼다고 한다. 일본의 기운을 흔들어 놓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가 찾아왔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에서 실상사 스님들은 더욱 열심히 범종을 두드리면서 우리나라가 한시바빠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신도들도 이 범종을 신비롭게 여기면서 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기를 빌었다.

그러자 범종을 치면 일본이 망한다는 소문이 짝 퍼졌다. 소문을 들은 일본 헌병들은 날마다 실상사 스님들을 협박하고 괴롭혔다. 그러나 새벽녘이면 보광전의 종소리가 변함없이 지리산 자락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일본 헌병들이 실상사로 몰려와 주지스님을 주재소로 끌고 갔다. 헌병대장이 직접 나서서 눈을 부라리며 문초했다.

“너희 실상사 중들이 아침마다 우리 대일본제국을 망하라는 뜻으로 범종을 친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미동도 없이 앉아 있던 주지스님이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어허, 나는 일본제국이 잘되라고 하는 마음에서 일본 쪽을 향해 은은하게 종을 쳤던 것이래요. 그런데 어찌 이런 내 충정을 몰라준단 말이오?”

그러자 헌병대장은 이내 흡족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곧장 주지스님을 풀어 주었다. 초조하게 주재소 밖을 지키던 스님과 신도들은 어디 한 군데 다친 곳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풀려나는 주지스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고, 이것들 보게. 주지스님께서 멀쩡한 육신으로 주재소를 나오시네.”

“아니, 스님! 치도곤을 치르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사하실 수 있었습니까?”

“스님, 도대체 어떤 지혜를 쓰셨습니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멎자, 주지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헌병들을 조금 놀려 주었다네. 일본이 잘되라고 아침마다 종을친다 했거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통쾌한 심정에서 박장대소를 하였다.

얼마나 두드렸는지, 범종의 일본 지도는 이제 많이 닳았다. 그런데“실상사가 망하면 일본이 흥하고, 실상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한다.”는 말이 예로부터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으니, 이 조그만 범종의 위세와 권능은 실로 대단하다고 하겠다.

실상사를 벗어난 차가 백장암으로 향한다. 왼쪽으로 남천을 끼고 달리는 길이다. 시린 물살이 봄을 찾아 흘러내린다. 물살은 지난겨울 이야기를 나누느라 쉴 새 없이 조잘거린다.

백장암으로 꺾어들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곳이 ‘백장공원’이다. 변강쇠를 벌주기 위해 팔도의 장승들이 모였다는 곳이다. 지금은 장승을 비롯해 여러 조형물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해 보기에 다소 실망스런 곳이다.

다음 주는 <수청산 백장암> 다섯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백장암 삼층석탑”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